

십사만 사천인(144,000)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계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 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자가 없더라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 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And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계시록 14 장은 깊은 흥미를 자아내는 장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뜻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자 요한에게 주어진 기별들은 분명한 말로 반복될 것이다. (리뷰 1904. 10. 13)

계14: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 22: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창 22: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벧전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벧전 1: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벧전 1: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 5: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13:8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원역)

계 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는 것은 큰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요 3:16)이었다. (부조, 63)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십사만 사천인은 아벨처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기 위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

미 4:2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사 2: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역대하 1:4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여아림에서 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역대하 5:2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것

이마: 품성(=생각과 감정)이 있는곳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5 증언, 310)

이름 G3686 ὄνομα onoma *on'-om-ah* : a “name” (literally or figuratively), (*authority, character*): - called, (+ sur-) name (-d). 이름(실제 혹은 상징),권위,품성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4,000 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인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였고, 거룩하신 분의 빛과 영광이 충만하였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려면 모든 죄악을 벗어 버려야 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리뷰 1889. 3. 19)

십사만 사천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 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초기 14-15

계 3: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 144,000 인의 품성(생각과 감정) 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의 원칙이 새겨진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 새 예루살렘의 특성

계 21: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1: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 22: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수님의 새 이름 : 새 이름(새로운 특성,권위,역할)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 14: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 14: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새로운 특성,권위, 역할)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심

계 14:1 절 정리:

144,000 인은 죄인을 위해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법궤가 있었던 곳)에 서서 희생당하신 어린양처럼 죽기까지 십계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마(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의 품성(그분들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인 십계명의 원칙)이 새겨졌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특성)을 알고 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새로운 특성,권위,역할)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다.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체험의 노래

계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계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자가 없더라

계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를 부를 144,000: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십 사만 사 천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계 15:2, 3, 14:1-5) 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14:5, 7:14-17) 쟁투, 648-649

짐승과 그의 우상 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144,000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 받은 144,000 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선다. 쟁투 648

계 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Rev 15:2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em that had gotten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d over his image, and over his mark, and over the number of his name, stand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땅에서 구속 받은 144,000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4,000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선지 591

계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정결한 처녀: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 바벨론의 오류로 인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절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피에 취한 여자 바벨론:천주교

계 17: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계 17:4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계 17: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 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계 14:4)다.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써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행적, 591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그분의 거대한 회사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될 선택된 세대,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이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 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이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목사, 422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이들 (살아 있는 성도들) :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다. 그 수가 십사만 사천명이나 되는 살아 있는 성도들 (The living saints, 144,000 in number)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초기 14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 3:4)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저항해 왔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가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 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 만 4 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 5).

이제 사자의 말들은 완전히 성취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속 3:8).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구속주요 구원자로 계시된다. 이제 진실로 남은 자는 “예표의 사람”이다. 그들의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날에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사 4:2, 3).”(5 증언, 475-476)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신성의 두 분께만 경배 드리는 자들:

이 사람들은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5) 선지 591

계14: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느 누구도 기만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율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다. 품성을 시험할 수 있는 다른 표준은 없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화잇주석, 살후 2:7-12)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해 온 사람들 외에는 입에 궤사가 없고, 점도 흠도 없이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정결케 한 남은 자들이 시련의 과정에서 힘을 모아 배도의 와중에서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다(편지 55, 1886) (화잇주석, 살후 2:7-12)

144,000 인의 묘사 가운데 두드러진 점들 중 하나는 그들의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자는 복이 있도다”(시 32:2)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며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거룩한 봉사를 할 채비를 차리고 성도들의 의인 흰옷을 입고 시온 산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양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먼저 지상에서 신뢰, 사랑, 달갑게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어야 한다. 초조하고 변덕스럽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 무리가 목자를 따르듯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게 따랐어야 한다 (3 기별, 424)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골로새서 4 장 6 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 장 29 절).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에베소서 5 장 11 절) 것이다.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요한계시록 14 장 5 절)는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 68-69)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계 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 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계 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7: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의 천사가 구속의 표인 이 표를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사라지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편지 126, 1898)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 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3:18).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 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쟁투, 639-640)

그분의 권위의 표징과 표장(標章)이 된 하나님의 인은 넷째계명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유일한 계명이며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신들로부터 명백하게 구분짓는다. 성경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사실은 그분이 모든 이방신들위에 계신것을 증거한다. {ST, November 1, 1899 par. 9

넷째 계명으로 명하신 안식일은 창조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여준다. 만약에 안식일을 항상 준수하였다면 우상숭배자나, 무신론자, 불신자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신성히 지키므로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로 향하게 하였을 것이다. 천연계의 사물들이 그분을 그들의 기억가운데로 가져왔을 것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였을 것이다.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가리키고, 그분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위에 그분의 온당한 권위의 표시이다. {ST, November 1, 1899 par. 10}

환난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데이 1846. 3. 14)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출 12:7,12,13; 겔 9:4; 20:12, 20)—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에다 피를 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그와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표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과 조화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전체적 파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의 문에다 한 표를 주신 것과 꼭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마다 각각 어떤 표식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고 하셨다(리뷰 1900. 2. 6)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출 31:12-17)—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구속으로 인한 주님의 소유이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 놓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출 31:12-17 인용)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편지 77, 1899)

타고난 특질들은 변화되어야 함—시험하는 자는 한 때 덮는 그룹, 곧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어찌 그리 적은가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주신 고도의 능력들을 오용하였다. 그는 오늘날 수천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유, 곧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편지 80, 1898)

세상에서 나와 말과 행실이 세속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신뢰할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표를 영광으로 여기고 거룩한 담력으로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궁정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존귀를 얻을 것이다. (편지 125, 1903) (화잇주석, 계 7:1-3-2,3)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큰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드리지 않은 신자가 많다. 그들이 이런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 (편지 164, 1909)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들과 불충성한 사람들을 구별 짓는 것이다. 불충성한 사람들은 참 안식일 대신에 사람이 만든 제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 짓는 표이다. (원고 27, 1899)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리뷰 1895. 5. 21)

밀랍 위에 도장의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인즈 1911. 7. 18)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편지 76, 1900)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뜻뜻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더듬거린다. (편지 121, 1903)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위험을 악인들에게 눈물로써 경고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스스로 경비할 것이다. 악인들은 그들의 슬퍼함을 조소하고 그들의 엄숙한 호소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과 경비는 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품성의 힘과 고상함을 다시 얻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 그들의 눈이 당신의 완전한 순결함에 고착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것처럼 분명하게 죄가 극악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두움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 3:4)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남아 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咆哮)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사단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십사만 사천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이 사람들은 ... ,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 5)

이제 다음과 같은 천사의 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앓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속 3: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와 구원자로서 나타나신다. “예표의 사람”인 남은 무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서 순례 생활의 눈물과 굴욕을 기쁨과 명예로 대신한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사 4:2, 3) (선지, 589-592) {5T 475.2}

왜 그들이 특별히 뽑혀 나왔는가? 이는 그들이 온 세상 앞에 놀라운 진리와 함께 서야 했으며, 반대를 받아야 했으며, 반대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속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이었다(원고 13, 1888).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화이트주석, 계 14: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리뷰 1905. 3. 9)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 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구주의 곁에 서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이 변화함을 받을 사람들의 표본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영광을 입은 이들에게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왕국의 축소판을 보았다. 제자들은 하늘의 빛으로 옷 입은 예수를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눅 9:35) 것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재림 때에 죽음에서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야가 서 있었다. (선지, 227)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소망, 422)

144000 명(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무리)과 특별 부활 할 자들의 차이점

특별 부활 할 자들:

나는 그녀가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4,000 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들이 그녀를 위하여 슬퍼할 필요가 없으며 그녀가 환란의 때에 편히 쉬게 될 것을 보았으며 우리들이 그녀와 자리를 같이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슬퍼해 마땅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죽음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보았다. (2 기별, 263)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단 12:2)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계 1:7)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쟁투, 637)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다. (초기, 285)

잠자는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실 때에 사단의 개선(凱旋)은 그 종막을 고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께서는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멸의 생명으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다. (1 기별, 305)

예수께서 불꽃에 싸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불멸의 몸)으로 일어났다. 144,000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소리로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초기,16)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놓려 있던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치고 있었다. 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 즉 원수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거꾸러졌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 위에 비취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빛과 영광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단련을 받은 신실한 무리는 눈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일어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사망과 음부를 이겼도다”하고 외쳤다. 그들은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영광과 승리의 함성이 아름답게 울려 나왔다. (초기, 272-273)